

해양권

KOMSA MAGAZINE

해양안전

2024 Spring Vol.57

KOMS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24 Spring | vol.57

안녕, See You Again!

안전해 더욱 따뜻한 봄,
그 바다에서 전하는 인사

안전, *Sea you again!*

CONTENTS

VOL.57



해안선 웹진 바로가기

해 맑은 바다 씨

04
바다의 인사
어느 봄날, 군산의
바다에서 건네는 인사

08
바다 옆 골목
눈이 부시게
제주 종달리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4년 4월 19일(통권 57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 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엔세이션

안전한 콤사 씨



16
KOMSA 증인
목포지역 해양사고
예방 현장 캠페인

20
현장 속으로
군산지사&
군산운항관리센터

26
칭찬이 트렌드
동료의 칭찬에
우리는 또 이렇게 힘을 얻어요!

28
주인공 나야 나
제주지사
문태준 주임검사원

신물인 문화 씨

32
어촌리 가다
인천 소무의도

38
바다말 이야기
알아 두면 쓸 데 많은
해양 용어 우리말 사전

40
어시장 나들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

44
싱싱한 식당
씨네네상차림

46
바다 봐야海
<웰컴투 삼달리>의 막내말 해달이처럼
해녀는 대를 이을 수 있을까?

48
뉴스

49
KOMSA 네트워크

어느 봄날,
군산의 바다에서
건네는 인사



따뜻함이 맴도는 군산의 바다에 파도가 일렁입니다. 봄이 왔다는 걸 안다는 듯, 요란함 없이 잔잔하게. 서마나의 방법으로 지난날 최선을 다했을 사람들의 수고로움을 나뉘며 바니는 한없이 푸르고, 고요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품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어부는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KOMSA의 사람들도 바쁘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그들이 삶의 터전에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만이 봄날의 바다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묵묵히 현장으로 향합니다. 바다의 안전은 KOMSA인의 시선 끝에, 손끝에 달렸다는 사명감을 가득 안은 채 말입니다.

안전한 바다



그 위를 지키는
사람들



바다가 유독 파란 이유는, 파란 하늘을 닮아서라고 합니다. 군산의 KOMSA인들도 파란 하늘을 닮아보려 합니다. 비가 올 때도, 바람이 불 때도, 뿌연 안개가 바닷길에 드리울 때도. 천재지변을 어찌할 도리는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때 바다에 파란빛이 일렁일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 마음이 모두에게 닿을 때까지, 바다의 품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봄날, 군산에서 KOMSA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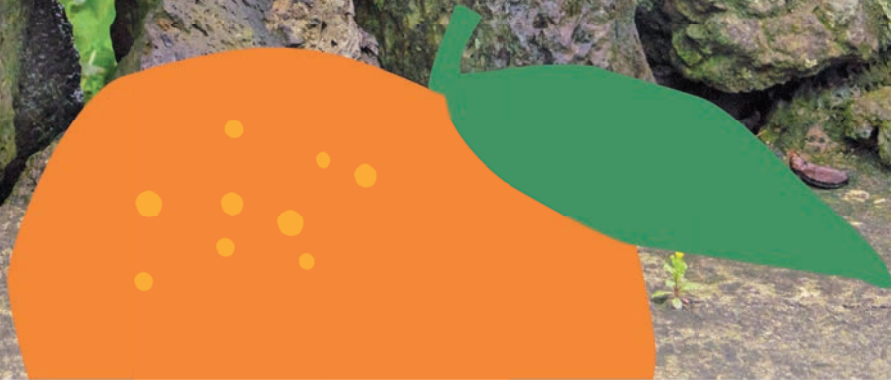
바다에서 안전하기를
바다에서 안녕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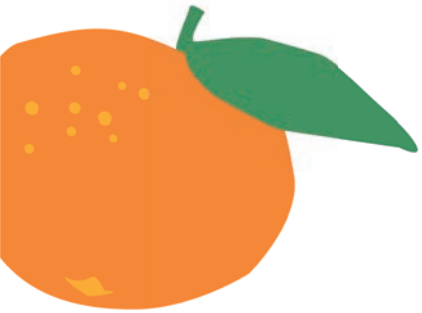


종달리에 가면 꼭 걸어서 여행하세요.
 골목마다 다른 감성과
 낭만이 숨어 있는 곳,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는 곳,
 낯선 길을 배회하는 일이
 얼마나 설레는지 알려주는 곳.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쳐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동네랍니다.

Travel in Jeju ✦
 Jeju, Jongdalri

바다연골목
 여행의
 계절
 이야기





제주 바다는 놀멍 봅서

맨도롱 또똔 종달리 혼자옴서에



제주도 동쪽 구좌읍 종달리

제주도 동쪽 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제주운항관리센터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이름 예쁜 마을이 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종달(終達)'은 맨 끝에 있는 땅, 제주목의 동쪽 끝 마을, 또는 증처럼 생긴 지미봉 인근에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종달리는 섬, 바다, 오름을 한 번에 품은 볼거리 가득한 마을이다. 그중에서도 지미봉을 빼고 마을을 소개할 수 없는데, 해발고도 165.8m의 지미봉은 종달리 어느 곳에서도 보일 만큼 우뚝 솟아 있다. 지미봉 정상에 오르면 가까이는 우도가 보이고 멀리 한라산의 풍경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종달리가 뜨는 이유

최근 들어 SNS에 종달리 풍경을 담은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 여행객 사이에서 숨은 명소로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 탁 트인 바다와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 한가로이 산책할 수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마을의 정겨운 풍경은 물론이거니와 예쁜 카페와 아기자기한 식당, 소품샵과 서점이 제법 많아진 까닭이다. 마을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둘 생긴 예쁜 가게들이 어우러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아기자기한 동네가 완성되었다. 마을 내 가게들은 모여 있지 않아서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다 길을 잘못 들어 골목을 헤매도 괜찮다. 오히려 좋다. 우연히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될 테니까. 조용한 주택가의 정취와 감성 가득한 상점이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제주도 동쪽 끝, 종달리로 향하자.

어디 감수광?

골목 투어에 나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종달리의 핫한 장소들.



- 1 고망난돌불턱
- 2 종달리전망대
- 3 해녀의 부엌
- 4 소심한책방
- 5 종달리소금밭체험시설
- 6 종달리엔심아식당
- 7 두가시엔오가니교
- 8 만나빵집
- 9 제주의 계절
- 10 순희밥상

농담 갑서양~

1

고망난돌불턱

제주를 여행하다 보면 가만히 앉아 제주의 바람을 온전히 느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불턱이 그런 곳이다.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자 작업 중 휴식하는 장소였다. 종달리에는 이런 천연 불턱들이 해안가에 수두룩한데, 그중에서도 '고망난돌불턱'이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다. 제주어 '고망난돌'은 '구멍이 난 돌'이라는 뜻으로, 바위 사이에 있는 구멍을 말한다. 고망난돌불턱은 커다란 바위들이 머리를 맞댄 채 아치형의 돔을 만들고 있다.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10



2

종달리전망대

종달리전망대는 높은 언덕 위에 흡사 배의 갑판처럼 보이는 모양으로 세워져 있다. 전망대에서는 동쪽의 성산 일출봉, 서쪽의 천연기념물 19호인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우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 바람을 맞으며 파란 바다와 아름다운 비경을 만날 수 있는, 제주스러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면 해변을 따라 500m 정도 이어진 산책로도 좋다. 걷기 편안하게 데크로 되어 있다.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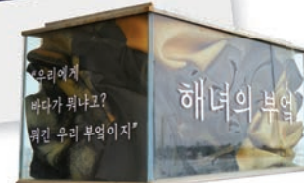


3

해녀의 부엌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종달리 포구 부두 위에 덩그러니 자리한 해녀의 부엌. 이곳은 20년 전, 생선을 경매하던 활선어 제주 종달리 위판장이었다. 세월이 흘러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창고로 변한 이곳을 청년 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국내 최초 해녀 극장식 레스토랑을 탄생시켰다. 해녀의 부엌 종달점에서 진행되는 '해녀이야기'는 종달리 최고령 해녀인 권영희, 김춘옥 해녀를 비롯하여 수십 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가 직접 출연하여 역척스러운 삶과 애환을 이야기하는 토크쇼 형식의 공연이다.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2265(해녀의 부엌 종달점)



4

소심한책방

소심한책방은 종달리를 대표하는 동네 책방이다. 종달리와 잘 어울리는 외관을 지닌 서점으로, 주인장의 취향으로 차곡차곡 채워진 다양한 책이 있다. 소심한책방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숨겨진 책, 시크릿 북이다. 책에 대해 어떤 정보도 모른 채 마스터가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이나 힌트만으로 마음에 드는 번호의 책을 고르는 것이다. 봉투에 예쁘게 포장된 책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선물을 갖게 된 것처럼 설레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게 된다.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동길 36-10

🕒 10:00~18:00



5

종달리소금밭체험시설

종달리는 한때 유명한 소금생산지였다. 바다 가까이 평평하면서도 너른 땅이 펼쳐져 있고, 물 시간도 적당해 종달리를 염전의 최적지로 택한 것이라고 한다. '소금 하면 종달, 종달 하면 소금'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고, 종달리 사람들을 소금바치(소금밭+이 : 소금 밭사람), 또는 소금쟁이라 부르기도 했다.

염전이었던 곳은 세월이 흘러 갈대가 무성한 습지나 농경지로 변했다.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은 소금밭을 잊지 않기 위해 종달리사무소 앞에는 소금밭체험시설을 운영 중이다. 종달리 소금 생산과정 설명판, 나라별 종류별 소금, 염전 이용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소금 초콜릿 만들기, 키팅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종달리 소금밭이 있는 곳은 현재 올레길 1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동길 3
- 🕒 10:00~17:00 토, 일 휴무



6

종달리엔심야식당

종달리엔심야식당은 오후 6시부터 운영된다. 어둠이 내려앉은 조용한 마을에 밤하늘의 별과 식당의 조명만 빛나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낭만적이다.

대표 메뉴는 달고기튀김이다. 달고기는 제주에서 잡히는 자연산 제주 생선으로 몸에 달 모양의 무늬가 있어 달고기라 불린다고 한다. 주로 옥돔, 고등어, 조기 등 고급 어종을 통으로 잡아먹는 달고기는 그만큼 맛이 좋단다. 잔가시가 없고 흰 살이 풍부하여 통째로 바삭하게 튀겨 머리부터 꼬리지느러미까지 모두 먹을 수 있다. 예약자 우선 좌석 배정으로 진행되니 예약은 필수다.

-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15
- 🕒 18:00~23:00 화, 수 휴무



7 두가시앤오가니꼬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3

소품스럽고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작은 카페다. 독특한 메뉴가 많은데, '백향과 에이드', '종달라테' 등이 있다. 맛도 맛있지만 그 모습이 예쁘니 사진은 필수

9 제주의 계절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34

우리 쌀과 제주의 재료로 빚은 휘낭시에 판매점. 불필요한 첨가물이나 보존제를 넣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의 옛집을 리모델링해서 빵집으로 운영 중.

8 만나빵집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5-1

외관이 매력적인 빵집이다. 종달초등학교 후문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다. 다양한 빵이 준비되어 있지만, 특히 소금빵과 우유식빵이 인기란다.

10 순희밥상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5길 38

가정식 백반집으로 메뉴는 순희밥상과 제주은갈치조림, 고등어구이와 조림, 옥동구이성게국정식 등 제주만의 상차림을 맛볼 수 있다.

맛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목포지역 해양사고 예방 현장 캠페인
바라던 바다, 안전한 바다

혼자서는 어려운 것 같은 일도,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실마리를 찾기 마련이다. 그만큼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나 다름없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목포지역에서 어업 종사자와 함께
 '안전'을 다짐했다. 이 다짐이 곧 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이다.

김준석 이사장은 “안전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해양 교통의 중심 목포에서 안전을 말하다

봄철 선박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
 양사고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이 3월
 20일부터 4월까지 시행하는 해양안전 특별대책 본부 활동의 일
 환으로, 공단 전체 지사 중 관할 선박수가 가장 많은 목포지사에
 서 실시됐다.

안전 캠페인이 있었던, 지난 4월 3일.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는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다 안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KOMSA 김준석 이사장은 “빈발하는 사고 예방 측면에서 마련한
 자리에, 성어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안전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바다 현장, 안전하되 스마트하게!

먼저 마련된 시간은 '해양안전간담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의 최근 해양사고 분석과 사고 예방에 관한 발표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이 시간에는 3월에 발생한 누적 어선 사고 현황과 주요 원인을 짚어봤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및 목포지역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알아보고 사고별 예방 수칙을 전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업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비개방정밀검사 확대, 구명뗏목 개방시기 완화 및 선등 설치 현실화를 언급했다. 선주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팁도 전했다. 출항 전 점검할 부분, 어선 화재 사고 예방법 등을 알려며 어업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제도에 대해서도 전했다.

어선 원격검사 시행, 어선검사 전자증서 확대운영, 해수호봇 구축 운영,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소개 및 이용 방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조업환경과 해양 교통 환경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고자 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지이기도 하다.



안전한 바닷길로 가는 초석이 되었기를

간담회가 끝나고 김준석 이사장은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표준어선형 복지공간 제도개선, 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어선 확대, 레저보트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KOMSA의 수장으로서 제도개선에 힘쓰기 위해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간담회 후 김준석 이사장은 목포 북항으로 가 현장 안전 점검에 임했다. 출항이 잦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 2척에 직접 승선해 구명조끼 안전설비 비치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캠페인의 마지막은 여객선사 간담회.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목포지역 9개 연안여객선 경영진과 함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준석 이사장은 바닷길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역시 안전하게 여객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루를 꽉 채워 진행되었던 목포지역 해양사고 예방 현장 캠페인. 이날 함께 외쳤던 안전에 대한 다짐이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바다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준석 이사장은 목포 북항으로 가 현장 안전 점검에 임했다. 출항이 잦은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 2척에 직접 승선해 구명조끼 안전설비 비치와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군산지사



새 마음, 새 뜻으로 출발하는 군산지사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군산지사

지난 3월 14일은 군산지사의 현판식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새로운 사무실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해양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산지사 직원들의 마음이 감지되었다. 삼삼오오 손님들 사이로 축하와 감사의 말들이 오갔고, 곳곳에서 웃음꽃이 만개했던, 그날을 함께했다.



고객과 직원의 만족도를 높인 사무실 이전

군산지사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군산지사는 지난 2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지금의 위치인 해망로 254로 이전을 완료했고, 2월 19일부터 차질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대지 100평, 면적 148평의 건물은 지하층이 있는 2층 규모로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현판식은 최호중 경영본부장을 비롯하여 고객만족 시위원과 해양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며 군산지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군산지사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에 허광석 지사장은 “군산지사는 앞으로 해양사고 저감과 더 나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로 인사를 전했다. 직원들과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현재 사무실은 내함과 인접해 있어 선박들과도 가깝고, 또 5~10분 내에 조선소들과 정비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나 공공기관과의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고객과 직원 입장에서 찾기 쉽고, 일하기 편한 장소이므로 더없이 만족스럽습니다.”

직원들의 행복이 고객에게도 전해지는 곳!

군산지사는 허광석 지사장을 비롯하여 검사직 6명, 행정실무직 1명이 뚝뚝 뚝뚝 안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근무 중이다.

“군산지사는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뉴시어선 선박안전진단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비응항, 격포항의 주 정박지 인근 어선 검사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안전 점검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검사증서 송부 시에는 지역 해양사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3월부터 진행된 어선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교육에 검사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밖에 나 홀로 조업 어선 및 예인선 사고 예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석 지사장은 직원들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지사는 검사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월 1회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신기술 검사는 적극적으로 동행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군산지사는 2018~2022년 5개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 3위의 상위권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허광석 지사장은 “직원들의 활발한 소통 문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애쓰는 마음 덕분”이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사무실 이전과 함께 새 마음, 새 뜻으로 더욱 밝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군산지사 직원들. 이들의 행복한 얼굴이 봄꽃처럼 해사했다. 따뜻한 정, 배려하는 문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법이다. 많은 고객이 군산지사에 엄지를 치켜 세우는 이유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다!

군산운항관리센터

군산운항관리센터의 운항관리자들은 마지막 여객선이 운항 종료로 보고할 때 '오늘도 안전하게 운항을 마무리했구나'라는 보람을 느끼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



젊고 활기찬 하나된 조직

조직의 분위기는 업무 수행과 성과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군산운항관리센터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 부여와 열정, 높은 자기 주도성을 자랑한다. 아울러 젊고 활기찬 조직 특유의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신명용 센터장은 활발한 의사소통이 비결이라고 자랑했다.

"무슨 일이든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무실을 확장 이전해 근무환경을 개선했는데요. 사무실 파티션을 최대한 낮춰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사와 고객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선사들도 센터 업무에 매우 협조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군산운항관리센터를 필두로 선사, 선박, 선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선박 운항을 위한 노력

여느 운항관리센터와 마찬가지로 군산운항관리센터도 안전이 가장 큰 이슈다. 여객선 점검이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드론, 지능형 CCTV 모니터링, 안개위험기상예보 서비스 등의 새로운 안전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융합하는 데 전 직원이 앞장서고 있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문화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객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승선 안전 수칙, 구명 소화 설비 시연 등의 해양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관내 도서 지역의 위도초등학교와 전북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위도초등학교를 포함해 3개 학교와 선박 종사자 교육으로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운항관리센터는 여객선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약 3,100명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밴드를 통해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 '여객선 기항지 혼잡상황 정보', '여객선 운항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고, 지난해 8월에는 어청카페리호에 '파도소리도서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양훈 대리는 "출항 전 점검 시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을 보며 내 업무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는 일화를 전했다.

군산운항관리센터는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지키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들이 더 즐겁고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



동료의 칭찬에

우리는 또 이렇게 힘을 얻어요! ^0^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진부한 말인 것 같지만, 누군가가 애정을 듬뿍 담아 칭찬을 건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더욱이 나와 함께 고생하는 동료가 건네는 칭찬이라면, 더 기쁜 법입니다. KOMSA인을 춤추게 한 칭찬을 공개합니다. 봄날만큼이나 따뜻한 사연이네요.

To. 검사관리실 김영환 과장

언제나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KOMSA인 전부에게 칭찬을 건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꼭 한 분을 꼽아야 한다면, 검사관리실의 김영환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검사관리실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언제나 지사 검사원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거든요. 지사에서 문의하면 항상 밝게 맞아주시고, 빠른 대응을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From. 포항지사 강윤희 과장

To. 인천지사 강상욱 과장

2024년, 인천에서 설렘과 긴장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좋은데, 근무하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입맛에 안 맞는 음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현지 맛집을 하나씩 알려주셨거든요. 덕분에 더욱 재미있고,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맛집 많이 알려주세요~!

From. 인천지사 고경근 대리

To. 선박탄소중립실 정석영 대리

처음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대리님께서 사소한 것도 빼놓지 않고 알려주신 게 생각나네요. 정규직 입사 지원할 때도 공부방법, 제게 필요한 교재까지 전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 선박탄소중립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업무로 바쁘신데도, 늘 한결같은 모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는 모습에 귀감이 됩니다. 대리님, 가정에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랄게요. 올 한 해도 파이팅! 응원합니다.

From. 선박탄소중립실 김의진 주임

To. 운영지원실 최효정 팀장

본사 최효정 팀장님을 칭찬합니다! 언제나 1층 안내데스크에서 외부 고객과 내부 직원 모두를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시거든요. 외부 고객 입장에서는 팀장님께서 공단의 첫인상일 수도 있는데,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팀장님의 긍정적 에너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밝은 첫인상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

From. 운영지원실 이은비 과장

Dear My Colleague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좋아하는

다들 물어봐 KOMSA 선박검사원



문제없습니다



태준이는 준비되었거든요.

제주지사 문태준 주임검사원



다정다감한 핵인싸



- 친화력 최강자
- 선입견 없이 사람들과 친해지는 스타일
- 활기차고 낙관적인 태도
- 재미있게 일해야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
- 사람 중심적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
-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남
- 샘솟는 아이디어

Q 자기소개해주세요.

대학에서 조선해양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조선소에서 설계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전공과 경력을 살리면서도 타인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바닷길을 책임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했습니다. 2020년 7월에 공단 검사원으로 입사해서 제주지역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Q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출근하면 먼저 공문이란 메일을 확인합니다. 당일 검사 스케줄을 정리하고 선박별 검사사항을 체크한 후 현장에 나갑니다. 검사가 끝나면 사무실에 복귀해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입무들도 처리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가 가장 바쁘는데, 하루에 많게는 6~7척 정도의 선박을 검사하고 있어요.

Q 업무가 힘들진 않나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재밌습니다. 보람도 크고요. 불법 증개축으로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해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결국 제 의견을 이해하고 따라 주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Q 위험한 순간도 있나요?

물론이죠. 항구에 가면 배를 올리는 거선대가 있습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요. 거선대에 물이 찻다가 빠지면서 이끼로 덮이게 되는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넘어진 적이 많아요. 여기저기 멍드는 건 물론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경우도 있고요. 전국에 계신 선박검사원들이 안전하게 검사하셨으면 좋겠어요.



Q 제주지사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제주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동시남 북이 다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탓에 기상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일하고 있어요. 제주지사 사무실이 있는 제주항은 맑은데, 제가 담당하는 남쪽 모슬포 지역은 강풍이 동반되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스케줄을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Q 제주에서의 생활은 만족하시나요?

제주는 정말 멋진 곳 같아요. 출장 가는 길에 협재해변이나 함덕 해변 같은 유명 관광지를 지나곤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제주지사로 발령받은 건 정말 행운 같아요.

Q 퇴근 후나 휴일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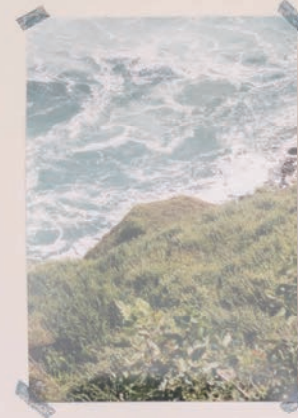
집에 있을 때는 만화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해변을 따라 러닝을 한 후 바다수영을 하는 거예요. 제주지사 이영훈 부장님과 취미가 맞아서 함께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는 슈트를 입고 같이 바다수영도 시작하려고 해요.

Q 평소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검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기계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좁은 기관실을 검사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긍정적으로 해결하시려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선박검사원은 어떤 일에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수 덕목인 것 같아요.

Q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제가 4월 말에 결혼을 합니다. 요즘 매일 설레면서도 더욱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과 가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수 덕목인 것 같아요.



행복해져라

봄
별
드리울 땐

소무의도를 걸어볼까

· 인천 소무의도 ·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 왔다
적당히 불어오는 바람도
따뜻하기만 한 햇살도 모든 게
반가운 계절 봄,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걸어볼까. 이 봄에는 어디든
좋겠지만, 기왕이면 사방이 푸른
빛으로 둘러싸인 바다면 더 좋겠다.
소박한 어촌마을, 길목마다
마주치는 색색의 꽃, 신선한
바닷바람까지 모든 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인천의 작은 섬,
소무의도는 어떨까

Spring



Somuni-do

‘대무의도’와 함께
 ‘무의도(舞衣島)’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옛날 어부들이
 짚은 안개를 뚫고 근처를 지나다가
 섬을 바라보면, 섬이 마치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선녀가 춤을 추는 모습’ 같기도
 해서라고 한다.

작지만, 작지 않은 소무의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섬이 많다. 소무의도 역시 그런 섬 중 하나다. 인도교가 생기면서 도보로 섬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인근의 ‘대무의도’와 함께 ‘무의도(舞衣島)’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옛날 어부들이 짚은 안개를 뚫고 근처를 지나다가 섬을 바라보면, 섬이 마치 ‘말을 탄 장군이 옷깃을 휘날리며 달리는 모습’ 같기도 하고, ‘선녀가 춤을 추는 모습’ 같기도 해서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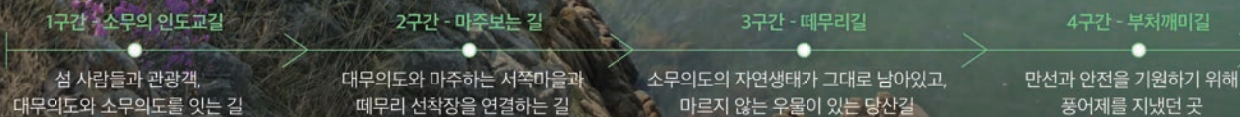
소무의도의 다른 이름은 ‘떼무리’. 보통 이 이름은 섬 주민들에게 불리는 이름이다. ‘대무의도 본섬 일부가 떨어져 나간 섬’에서 유래되었다고 인도교와 연결되는 섬 서쪽 마을 선착장 이름이 ‘떼무리 선착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은 섬이지만, 역사는 전혀 작지 않다. 무려 3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았고, 20여 년 전에는 안강망 어선이 40여 척에 수협 출장소가 있었을 정도로 어획량이 풍부한 섬이었다고 한다. 갯벌에서는 굴, 바지락, 고동 등이 채취되고, 계절별로는 게, 장어, 새우, 농어 등이 많이 잡혔다고 하니 부유한 섬이었음에는 분명하다.



인도교에 입성하기 전에
인도교 초입에 안내된
무의바다누리길 코스를
알고 가면 좋다.
무의바다누리길은 소무의도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을 일컫는다.
약 2.5km 길이의 길로
총 8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걸을수록 아름다운 무의바다누리길



무의바다누리길 따라 걸어서 섬까지

광명항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10여 분을 걷다 보면 인도교가 나온다. 인도교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다. 이 다리 덕분에 소무의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교에 입성하기 전에 인도교 초입에 안내된 무의바다누리길 코스를 알고 가면 좋다. 무의바다누리길은 소무의도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을 일컫는다. 약 2.5km 길이의 길로 총 8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구간은 소무의 인도교길, 2구간은 마주보는 길, 3구간은 떼무리길, 4구간은 부처깨미길, 5구간은 몽여 해변길, 6구간은 명사의 해변길, 7구간은 해녀섬길, 8구간은 키 작은 소나무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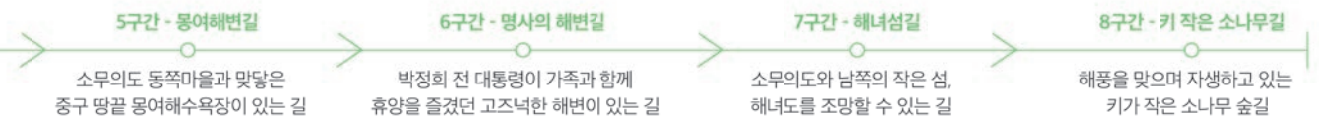
길 따라 가다 보면 섬 전체를 걸을 수 있으니, 어느 한 구간을 정해서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섬 전체를 걷는 데는 넉넉히 2시간이면 충분하다. 걷다 보면 섬을 찾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만큼 길이 험하지 않다. 그러니 조금힘 없이 천천히 자신의 호흡대로 걸어보자.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멈춰서 쉬어도 모자람이 없을 테니.

평화로운 장면들의 연속이라서

몇몇 카페와 식당이 있는 마을길을 따라 떼무리 선착장까지 가면 느린 우체통이 나온다. 쉽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요즘이라 그런지 반갑기만 하다. 반가웠던 느린 우체통을 뒤로 하고 떼무리길에 올라 본다. 개나리와 이름 모를 꽃들이 산책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덤이다. 그러다 심터에 서서 한없이 펼쳐진 바닷길을 바라본다. 멀리 영종도,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팔미도가 보인다. 실제로 영종도, 을왕리하고도 가까워서 소무의도까지 들렀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캠핑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접근성도 좋고 조용한 섬의 분위기가 캠핑하기 더할 나위 없다.

떼무리길을 지나면 기암괴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보이는 해변은 몽여해변이다. 다른 길보다 평화로운 모습에 마음이 절로 안정된다. 몽여해변에 있는 '섬카페 좋은날'에서는 목을 축이며 바다를 한 없이 바라볼 수 있는데, 푸른 하늘과 고요한 바다가 마치 그림 같다.

여기서는 낚시꾼들도 많이 보인다. 알고 보니 우럭, 농어, 노래미, 광어 등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이 '애정'하는 섬이라고 몇 시간이고 물고기를 낚기 위해 기다리는 낚시꾼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걷다 보면 명사의 해변길, 해녀섬길이 나온다. 감탄하는 사이, 소무의도의 전망대 역할을 하는 하도정까지 왔다. 정자에 앉아 걸은 길을 되뇌며, 숨을 고른다. 구간마다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눈에 담고 아쉬운 소무의도 산책을 마친다. 이 봄, 소무의도에서 마주한 장면들이 희미해질 때쯤, 다시 또 찾겠노라 다짐하며. 🌐



KOMSA × 국어문화원연합회

海

알아 두면 쓸 데 많은 해양 용어 우리말 사전

경하, 농무, 광달거리...
의미를 들으면 알 것도 같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해양 용어.
KOMSA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어려운 해양수산계 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된
우리말 대체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洋

用



語

해양 용어, 쉽고 빠르게 이해하자!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은 세대, 지역, 학력, 직업 등과 관계 없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정확하고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국민에게 알리기 쉬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정확한 문장 사용을 장려하는 국어책임관을 각 정부 부처에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KOMSA도 한자나 영어 표현이 많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양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기 위해 필을 건어붙였다. 지난해 국어문화원연합회의 '국어책임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해양수산계 어려운 법령과 행정규칙 용어 등에 대해 검토하고 대체어(순화어)를 마련한 것.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한 300개 초안 후보 중 150개 용어를 개선 대상 용어로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법령·행정 용어는 물론 일반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해양레저 용어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KOMSA는 확정된 대체어를 영상·카드뉴스·자료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홍보하여 활용 확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활용도가 높은 용어 50개를 선별하고, 선별한 용어를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전문용어로 고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국(旗國) Flag State
↓
선박관할국
배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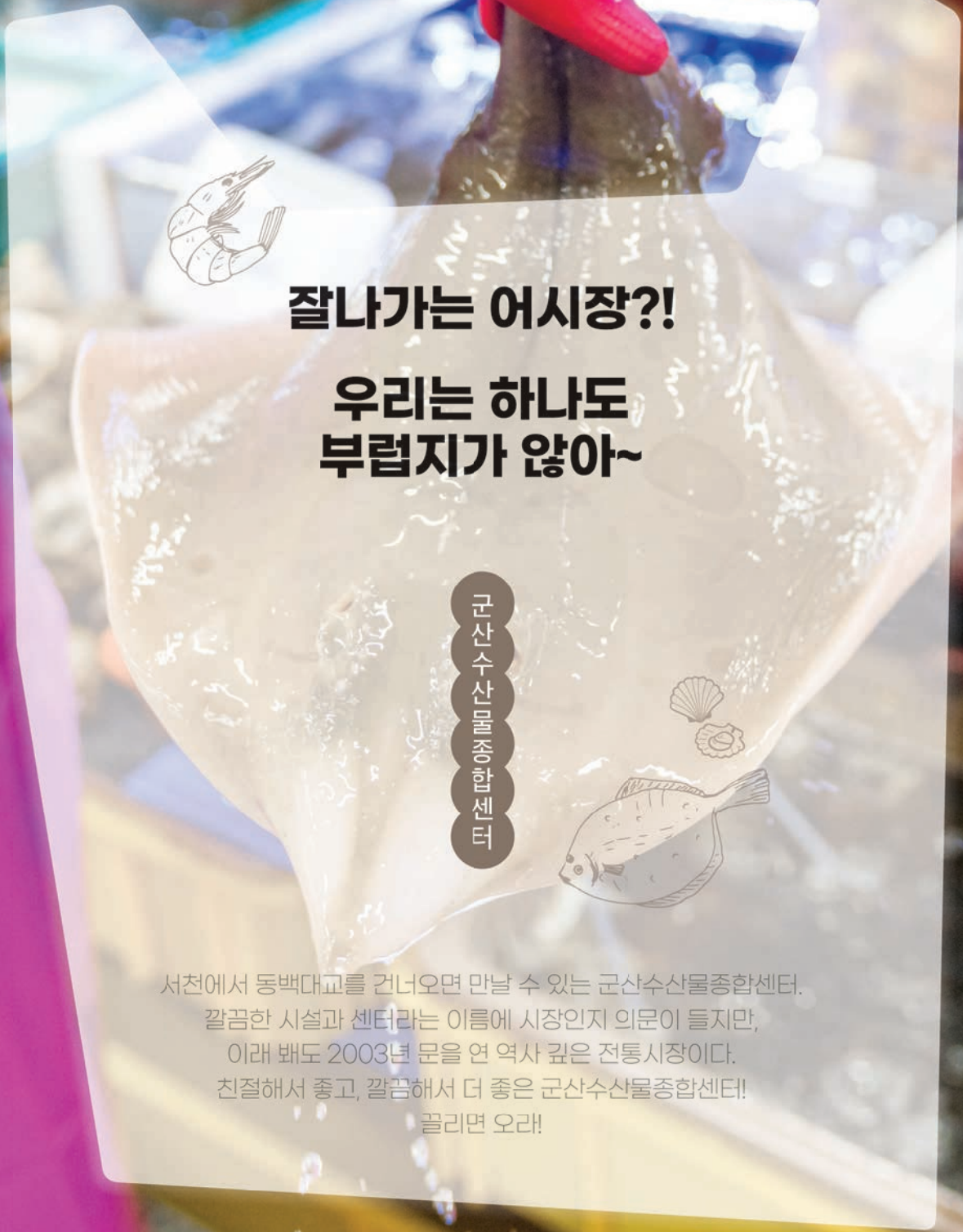


어려운 해양 용어, 이렇게 대체해요!

노젓기
↓
패들링(padding)
카누에서 패들(노)로 저어 나가는 일

도개교
↓
열림다리, 여닫이다리
큰 배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 열리는 구조로 만든 다리

농무(濃霧)
↓
짙은 안개
자욱하게 낀 짙은 안개. 농무기는 '짙은 안개 기간'으로 대체



잘나가는 어시장?!

우리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서천에서 동백대교를 건너오면 만날 수 있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깔끔한 시설과 센터라는 이름에 시장인지 의문이 들지만,
 이래 봐도 2003년 문을 연 역사 깊은 전통시장이다.
 친절해서 좋고, 깔끔해서 더 좋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끌리면 오라!



시설 좋고 접근성 좋은 어시장이라니!

북쪽으로는 충남 서천군, 동쪽으로는 익산시, 남쪽으로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접해있어 이래저래 접근성이 좋은 군산. 게다가 내항, 외항이 자리하고 있는 해양 도시이기도 하다. 주변에 바다가 위치한 만큼, 싱싱한 수산물을 쉽게 맛볼 수 있는 게 군산의 매력 중 하나다. 군산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구경하고, 맛볼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비응항 새만금종합수산시장, 내항의 군산수산물종합센터다. 그중에서도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역사 깊은 내항 인근에 있어 많은 사람이 여행길에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물론, 인근 주민들도 장 보러 많이 찾는다. 사람들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찾는 많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설이 아닐까. 2003년 10월에 개장한 전통시장인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3년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작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1층 본관에는 다양한 수산물을 파는 점포들, 2층에는 10여 개의 상차림 식당, 별관 건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전북 군산시 내항2길 216



원산지 표시,
우리는 기본이랑게~



넓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판매하는 상인과 구경하는 사람들이 뒤섞인 풍경이 한 눈에 펼쳐진다. 많은 수산물도 있음에도 비린내는 거의 제로. 그도 그럴 것이 군산수산물 종합센터는 평소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위생적인 시장'으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오랜 기간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 만큼 깨끗이 관리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 역시 한마음으로 노력 중이라고 한다.

구경하다 보면 점포마다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해 놓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원산지 표시도 잘해냈는데, 알고 보니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2023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선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최우수시장이라고.

"우리는 원산지 표시 다짐 결의를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들만의 약속이죠." 점포를 지키고 있는 한 상인의 한마디에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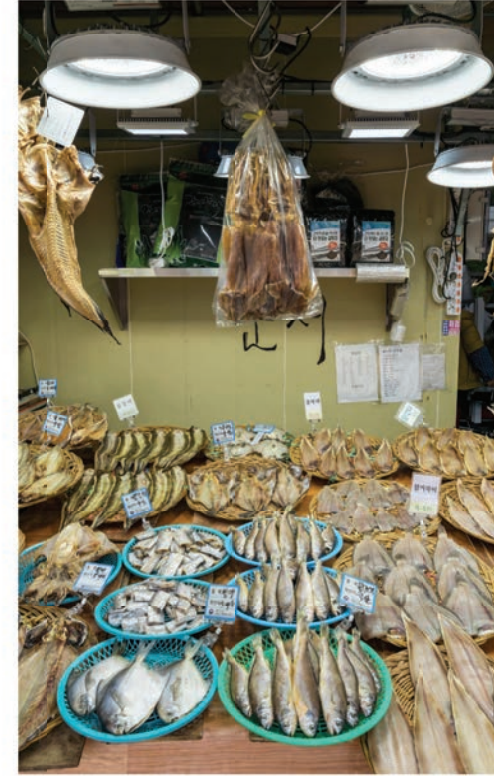
이런 어시장이면
자주 가야지~!



누구나 한 번쯤 어시장에 가서 과한 호객행위로 눈살이 찌푸려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는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상인들은 강요하지 않고, 고객들이 천천히 둘러볼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가격 문의, 수산물에 대한 설명이면 설명 어느 하나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덕분에 군산수산물종합센터의 이미지는 절로 상승 중이다.

"센터에 자주 오는데요. 올 때마다 친절해서 참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매 부담도 없어서 웬만하면 여기로 오는 편이에요." 군산에 거주 중인 소비자의 생생한 후기가 이곳의 경쟁력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큰 요즘, 군산시는 수산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걱정 없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가 그 노력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업계의 선례를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하며, 꽤 즐거웠던 시장 구경을 마무리한다. 🌐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 Pick • 이맘때 한번 잡춰봐~



주꾸미

봄이면 제일 잘나간다는 주꾸미. 센터 상인들은 말한다. "주꾸미는 지금이 젤 맛있어~" 라고 피로 회복에 좋고, 쫄깃하고 고소한 주꾸미 취향껏 요리해 먹어보자.



갯오징어

오도독한 씹는 맛이 일품인 갯오징어. 볶음이나, 라면에 넣어서 많이 먹기도 하지만, 센터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갯오징어회가 가장 인기라고.



박대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생선이어서인지, 센터에서는 박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건어동에서 말린 박대를 파는데 같이 깨끗하고 만졌을 때 구덕구덕한 느낌이 나는 게 좋다.



입
벌려,

제철 맞은 주꾸미 샤부샤부

씨니네상차림

들어
간다?



심상한 수산물이 가득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거기서 눈요기했다면 이제는 입으로 맛볼 차례다. 무얼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맘때쯤이면 꼭 먹어야 한다는 주꾸미, 너로 정했다!
☎ 씨니네 상차림 063-446-0389

그거 알아? 봄 주꾸미는 보약이래!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생기가 도는 계절 봄. 이번 봄에는 지난겨울 추위에 지친 몸을 제대로 보신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다.

봄이 제철인 식재료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최고는 단연 주꾸미다. 피로 회복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많기 때문이다. 타우린 많기로 소문난 낙지의 2배, 문어의 4배, 오징어의 5배나 된다고 하니 바다의 피로회복제라고 불릴만하다. 게다가 불포화지방산과 DHA가 풍부해 두뇌 발달에도 좋아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재료다.

옛날에는 주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귀한 낙지 대신 즐겨 먹어 '낙지 대체품'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고 말할 정도로 봄이면 낙지보다 값도 비싸고, 대접을 받으니 이쯤 되면 봄 제철 식재료계의 꽃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심상한 주꾸미×직접 기른 채소 이 조합 난 찬성~

군산수산물종합센터 2층에 자리한 씨니네상차림은 시장 상인들도 인정하는 아무지고 친절해 식당이다. 1층 시장에서 주꾸미를 구매해 식당으로 가서, 상차림비만 내면 주꾸미를 손질해 맛있게 요리해 준다. 거기에 오션뷰는 덤. 창가 자리를 확보하면 짝 펼쳐진 바다를 보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

보통 '주꾸미'하면 주꾸미 삼겹살구이, 주꾸미볶음을 떠올리는데 주꾸미 샤부샤부는 봄철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로 손꼽힌다. 주인 부부가 직접 농사지어 기른 채소가 가득한 육수를 끓여 살이 통통하게 오른 주꾸미를 살짝 데쳐 먹으면 '지난겨울,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추위를 견뎠나 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먹는 팁을 전하자면, 다리는 살짝 데칠 것.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기 때문이다. 살짝 데친 다리는 초고추장에 콕 찍어 먹으면 주꾸미 본연의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대가리는 꼭 익힐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을 낸다. 꼭 익은 채소를 건져 먹는 것도 재미.

산과 바다에서 나는 귀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산해진미라고 하는데, 씨니네상차림에서 맛본 주꾸미 샤부샤부, 산해진미로 인정! 🌊



#제철 맞은

#주꾸미

#봄에 먹어요

#보양식이 따로 없어요



웰컴투 삼달리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에서 남녀 주인공의 멜로 만큼이나 정답고 애뜻한 건 고락을 함께하는 해녀들의 일상이다. 거친 물살과 바람 속에서도 동료들 의지해 곳곳이 생을 걸어 올리는 해녀들 그리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된 딸의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서 문득 궁금해진다. 드라마에서처럼 실제로 해녀는 자식이 승계받을 수 있는 직업일까?

<웰컴투 삼달리>의 막내딸 해달이처럼

해녀는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해녀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다시 어머니가 딸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직업이었다.

생의 무게를 지고 바다로

<웰컴투 삼달리>의 주인공 조용필의 어머니와 조삼달의 어머니는 둘 다 해녀다. 아이까지 한낱한시에 낚으며 돌도 없는 친구이자 동료로 함께 해온 두 여인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다였다. 굶은 날씨에 무리한 물질이 원인이 되어, 삼달의 어머니 고미자는 시어머니와 동서에 이어 소중한 친구까지 바다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래도 미자는 하루하루 묵묵히 바다로 향한다. 생이라는 무게를 짊어진 채. 시간이 흘러 해녀 회장이 된 미자. 다른 자식들은 꿈을 좇아 고향 제주를 떠나지만, 막내딸 해달만은 해녀가 되겠다고 미자 곁에 남는다. 심장질환을 앓는 미자는 자신이 흑여 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하며 해달의 결정을 반대한다. 그러나 해달은 "엄마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라며 잊고 있던 꿈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렇게 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된다.



급감하는 제주 해녀의 현실

그렇다면 극중의 사례처럼 어머니에 이어 딸이 해녀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해녀가 딸이나 며느리에게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예로부터 제주에서 해녀는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다시 어머니가 딸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직업이었다. 제주 해녀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에 등재되며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제주 해녀 인구수는 매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해녀의 고령화와 바다 환경의 변화, 신규 해녀 양성과 어촌계 진입의 어려움 등 때문. 하루 한나절 수면 위아래를 오가는 작업이 고통스럽고 위험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승계 자격이 없는 외지인이 라고 해서 해녀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제주에 있는 해녀학교 교육을 이수한 후, 어촌계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해녀가 될 수 있다. 🌊



KOMSA NEWS

Spring 2024

해안선 주요 소식

2024년 '여객선 공공성 강화' 등 중점 추진 사업 발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새해 국가보조항로 등 연안교통의 안전·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선 공공성 강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지난 1월 2일 오전 세종 본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중점 사업 분야는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어선원 관리 체계화·사고 예방 지원 ▲선박검사 디지털화 ▲해양교통안전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제고 등 네 가지다. 김준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미래 정책 수요에 대비한 혁신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수중드론' 등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한 여객선 운항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로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여객선 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전국 운항관리센터의 항공 및 수중드론 영상정보를 공단 본사 운항상황센터로 실시간으로 송출해, 본사에서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여객선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내일의 운항 예보'는 전국 58개 주요 항로의 다음날 여객선 운항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다.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 가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일어난 잇단 어선사고와 관련해 2024년 4월까지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지난 3월 20일 오전 공단 본사에서 전국 지사, 센터 등과 함께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본사는 물론 일선 지사·센터들의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집중하여, 성어기 어선 안전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 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범위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본사 안내

044) 330-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개발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교통연구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안전연구실	T.2450	F.2461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지사 안내



본사로 오시는 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1~2277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